

A close-up photograph of a person's arm and hand holding a large, irregularly shaped rock. The rock has a light beige and tan color with prominent, dark, wavy veins running through it. The person's skin is fair and appears slightly wet or glistening. The background is dark and out of focus, suggesting a rocky or natural environment. The text 'MINOR BEINGS' is written vertically in white, sans-serif capital letters along the right side of the image. Below it, the Korean text '세이징 오브 네' is also written vertically in white, sans-serif characters.

MINOR BEINGS 세이징 오브 네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2026년 10월 3일(토) 19시 / 4일(일) 15시. 19시

〈Minor Beings 숨은 존재들〉은 몸을 독립적이고 완결된 개체가 아닌, 서로 다른 존재들과의 마주침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되고 변형되는 상태로 바라보는 안무 작업이다.

작품은 폐허를 삶이 끝난 장소가 아닌, 서로 다른 존재들이 남겨진 환경에 기대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서식지로 바라본다. 이러한 시선을 몸으로 연결하며, 몸 역시 타자와의 얽힘과 상호 의존 속에서 형성되는 불확정적인 존재임을 탐색한다.

알아차림, 안으로 말림, 교란은 익숙한 신체의 경계를 흔들고, 서로 다른 감각과 시간, 리듬이 마주치며 변형되는 과정을 탐구하는 안무적 실천이다. 이 과정에서 춤은 하나의 중심이나 완결된 형태로 수렴하지 않고, 서로의 차이를 유지한 채 영향을 주고받는 다성적 관계로 나타난다.

〈Minor Beings 숨은 존재들〉은 오염과 교란을 통해 변화하는 몸,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마주침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질문을 던진다.

몸은 무엇과 얽혀 있으며,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가.

김보라, 이미진



textile scénographe

몸, 알아차림 그리고 서식지_

어느 날, 나는 내 몸을 폐허로 바라보게 되었다.

폐허는 삶이 끝난 장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간의 손길이 멈춘 자리에는 이끼와 균류, 작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은 무너진 곳을 이전 모습으로 되돌리지 않는다. 남겨진 틈과 물질, 다른 생명에 기대어 각자의 삶을 이어간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홀로 살아간다고 여겼던 몸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꽤 자주 이유도 모른 채 몸을 둥글게 말고 움트는 시간을 보낸다. 등이 굽고 무릎이 가까워지면 숨이 옷에 스치는 소리가 들리고, 바닥을 누르는 뼈의 모서리 무게도 조금씩 달라지며 미세하게 움직인다. 쉬고 있는지 무언가를 견디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자세에서, 몸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잠시 멈추고 냄새를 킁킁 맡는다. 내 몸 가까이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는 작은 의식이다. 〈숨은 존재들〉은 이렇게 안으로 말린 몸이 무엇과 함께 있는지 느끼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알아차림**은 보이지 않던 존재를 찾아내는 능력이 아니다. 내 움직임의 앞세우기 전에, 이미 내 곁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의 시간을 마주치는 일이기도 하다. 알아차림은 다른 몸과 마주치는 순간에도 계속된다. 무엇이 나에게서 시작되었고 무엇이 다른 몸으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가를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태를 오염이라 불렀다. 나의 것이라고 믿었던 움직임 안에 다른 존재의 영향이 들어와 있음을 인정하는 시간이다.

리허설을 본 윤수련 선생님은 이 작업을 '**난잡한 돌봄**(Promiscuous Care)'¹⁾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작업실에서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머물던 몸들이 떠올랐다. 다른 몸이 가까워지고 닿을 때마다 그 몸들은 흔들렸다. 가까스로 유지하던 균형이 무너지기도 하고, 막혀 있던 움직임이 트이기도 했다. 우리는 한 몸의 흔들림이 다른 몸의 길을 바꾸는 순간을 **교란**이라 불렀다. 그러므로 함께 흔들린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누가 움직일 자리를 얻었고, 무엇이 그 자리를 내어주었는가? 그 흔들림 이후의 변화는 누가 감당하는가? 내게 ‘난잡한 돌봄’은 서로에게 기대는 일과 함께 그 관계의 변화를 살피라는 말로 남았다.

폐허에서 자라는 생명을 곧바로 희망이라 말할 수도 없다. 어떤 몸은 기다릴 자리조차 갖지 못했고, 어떤 삶의 터전은 이미 사라졌다. 새로 생겨난 관계를 바라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존재들과 사라진 것들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이 작업에서 끝의 움직임은 **포자**처럼 흩어진다. 어디에 닿을지, 닿은 곳에서 무엇을 바꿀지 미리 정할 수 없다. 함께 한 것들이 몸에 남긴 변화는 다시 주변부로 이어진다. 아마도 끝맺기를 거부하는 춤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다른 몸과 장소에서 계속될 것이다.

처음 폐허로 바라보았던 내 몸으로 다시 돌아온다. 말린 몸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다. 몸들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다음 움직임을 만날 수 있는지 조금 더 느린 시간으로 기다려 본다. 〈숨은 존재들〉은 그 불확실한 자리에서 서로의 움직임을 다시 살피는 춤이길 바란다.

애나 칭의 《세계 끝의 버섯: 자본주의의 폐허에서 삶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이 작품을 만드는 동안 우리가 누구와 무엇에 기대어 춤추고 있으며, 우리의 움직임은 그들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묻게 했다. 애나 칭과 그의 책에 감사한다. 가보지 않은 길에서 함께 움직이고 생각하고 관찰한 뒤 다시 움직일 용기를 내 준 여덟 명의 퍼포머와, 그 길을 믿고 동행해 준 모든 제작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김보라

아트프로젝트보라와 함께 인간과 비인간이 얽혀 살아가는 ‘함께—살기’의 감각을 몸과 춤으로 탐구하고 있다.

¹⁾ ‘난잡한 돌봄(Promiscuous Care)’은 연구자·활동가 집단 더 케어 컬렉티브(The Care Collective)가 《돌봄 선언(The Care Manifesto: The Politics of Interdependence, 2020)》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춤이라는 패치워크

윤수련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 퍼포먼스연구자

신작 〈숨은 존재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안무가에게 영감을 준 인류학자 애나 칭의 저작 〈세계 끝의 버섯: 자본주의의 폐허에서 삶의 가능성에 대하여〉를 다시 들춰본다. 이 책은 근 몇 년 간 포스트휴먼, 인류세,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진 창작자들과 큐레이터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저작을 인용하는 작품들을 마주할 때마다 ‘버섯의 관점에서’라든가, ‘군사체를 닮은’이라는 식으로 관점이 축소, 수렴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군사와 자연을 유토피아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세계관이 이따금 우려스러웠다. 정작 칭은 책의 시작부터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송이버섯 산업과 생태를 추적함으로써 취약하고 불안정한 삶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이 과정 속 각각의 사례에서 나는 패치성(patchiness) (우리 세계의 상황들이 얹혀있는 방식들을 배치하고 있는, 무한히 열린 어셈블리지(assembly)들의 모자이크)에 둘러싸여 있음을 알아차린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다룬 기존의 권위있는 분석들이 성장중심주의적 전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 학자들은 평범한 참여자나 관찰자들에게는 너무나 뻔히 보이는 시공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같은 이질성에 대한 이론은 이제 막 전개되는 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현 상황의 얼룩덜룩하고 누더기를 기운 듯 고르지 못한(patchy) 예측불가능성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 상상력을 다시 열어야 한다. 이 책의 목적은 그 과정을 도우려는 데 있다. 버섯과 함께 말이다.” (〈세계 끝의 버섯〉 4쪽)

그러니까 〈세계 끝의 버섯〉은 엄밀히 버섯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보다, 버섯을 경유하여 사유하는 인간의 이동과 글로벌 관계 재편에 대한 탐구이자 새로운 상상을 촉구하는 안내서이다. 글로벌 자본주의가 회오리처럼 휩쓸고 지나간 폐허 속에서 협상, 타협, 투쟁해온 이들을 억압적 자본주의의 피해자라는 균질한 구도로 단순화해온 지식생산에 대한 비판적 개입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은 착취구조 속 생존방식을 협상하고, 한편 브로커, 관리자,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 내 인종-젠더 차별 등 내부의 위계와 욕망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송이버섯 등의 세계적인 거래망에 끈끈하고 친밀하게 얹혀왔다.

이 거대한 구조적 억압과 피해의 역학 속에서, 단순한 구도로는 포착하기 힘든 복잡하고 불균형한 인간 관계망을 버섯과의 관계를 통해 서서히 ‘알아차리게’ 된다. 이는 먼 곳의 추상적인 거대 서사가 아니다. 자연친화적이고 건강하며 공정한 로컬 밥상을 위해 올리는 국산 느타리나 표고 역시 네팔,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휴일 없이 돌본 결과물일 수 있다. 이처럼 자각하지 못했던 불편한 연결은 버섯을 경유해 천천히 드러난다. 〈숨은 존재들〉은 이러한 느릿한 알아차림, 그리고 서로 동떨어져 보이는 우리 각자의 위치가 어떻게 끈끈하게 얹혀 있는지 성찰하는 과정을 핵심으로 삼는다. 이는 더 나은 내/우리가 되기 위한 성찰이라기보다, 세상을 익숙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인식론 자체를 열어젖히려는, 따라서 상처받고 무서울 수 있는, 시도이다.

이러한 폐허, 관계망, ‘알아차림’의 심상은 무대 위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관객의 시선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비닐, 그물, 털실, 밧줄, 커튼 천 등 이질적인 재료들로 만든 기괴한 조각보 또는 패치워크(patchwork)이다. 폐허 속 폐기물들이 얹혀 만들어낸 새로운 생태환경처럼 보이는 이 서식지에서, 퍼포머들은 표면을 만지며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실에 걸려 비틀대거나, 비닐표면과 마찰을 일으키며 자신과 타인의 몸이 지닌 무게, 각도, 질감을 감각한다. 이 폐기물의 패치워크는 퍼포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주 엉키고 달라붙기도 하며, 살갓에 부딪혀 불쾌한 소리를 내기도 한다.

퍼포머들은 훈육된 방식대로 몸을 세우거나 무게중심을 잡으려 하지만, 폐기물 및 다른 퍼포머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관계는 몸의 펼침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다. 몸이 말려가는 과정에서 퍼포머들은 부자연스럽게 쏠리거나, 팔다리가 꼬여 덩굴줄기나 매듭 같은 모양을 이룬다. 군사체 속에서 엹히고 포자들이 퍼져나가 사슬 같은 곰팡이를 만드는 과정을 떠올리게 하는 이 신체-매듭들은 낭만적이거나 친밀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 관계망을 벗어나려는 것인지, 밀어내거나 오히려 더 엮으려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채로, 퍼포머들은 에너지를 소진하며 ‘트!’ ‘츠!’하는 통기성의 소리를 내뿜는다. 기침에 가까울 정도로 강도가 세어지면서 점점 더 커진 이 소리들은 진동으로 전환되고, 신체들의 진동이 모여 일종의 거대한 허들(huddle) 또는 정체불명의 크리쳐 같은 덩어리를 만든다. 그러나 이 덩어리는 안정적인 공동체라기보다 언제든지 무너질 듯 위태하다. 그 안에는 위계, 긴장, 폭력이 늘 잠재해 있으며, 접촉과 연결이 늘 임파워링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별개의 뒹뒹거림을 닮은 이 진동의 에너지는 완결되고 확신에 찬 힘보다는 불안과 불안정을 보여주지만, 그렇기에 언제나 열려 있거나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진동이 잦아들면서 무대 가장자리 또는 세상의 끝자락으로 느릿하게 흩어진 퍼포머들은 스쿼트 자세에서 무릎을 잡고 상체를 들어올리거나, 다른 몸에 기대어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거나, 바닥에 엎드린다. 몸과 손발가락은 안쪽으로 말려 있다. 과거 직선적이고 대칭적으로 훈육된 신체는 정해진 문법에 따라 세상을 지각했겠지만, 접히고 말린 몸은 이제 세상에 평소와 같은 익숙한 방식대로 접속할 수 없다. 예전의 몸의 모양과 근육의 움직임은 복원하려는 듯 돌아가려 애써도 이미 변화는 일어났다. 다시는 과거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폐허 속에서마저 길어 올린 단 하나의 진실은, 이미 알던 ‘나’는 알아볼 수 없는 한편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는 공포스럽고 위험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해온 변화의 감각과 힘을 지우거나 반동적으로 복귀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변화의 힘은 방향성 없던 목소리들을 순간순간 빛이 명멸하듯 다중적 협화음으로 전환하며 멀리 떨어진 몸들을 이어준다.

퍼포머들은 관객인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무대의 중심으로 모이거나 작품 대단원의 막을 보여주지 않는다. 작품의 완결이라는 목적성을 위해 공연 관람 때마다 시간을 선형적으로 경험하는 습관을 가진 관객 모두에게는 어쩌면 허탈감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퍼포머들이 천천히 변화된 스스로의 몸을 알아차렸듯, 관객 역시 자기도 모르게 그 변화의 진동에 오염되어, 완결성을 기대하는 익숙한 관객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될지 모른다. 한편 퍼포머들이 서로 엹히고 폐기물을 끌고 간 자리에는 의도치 않게 땀방울, 흙가루, 밀싹, 섬유 조각, 먼지, 지푸라기가 떨어져 댄스플로어 아래와 무대 틈새로 사라진다. 퍼포머들의 진동이 다른 몸들로 퍼져나갔듯, 신체가 남긴 흔적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름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시작한다. <숨은 존재들>을 겪은 극장과 극장이 마주한 세계는 이렇게 ‘오염’되어 또 다른 연결을 시작한다.

[참고문헌 더 알아보기]

<2024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기후 프로젝트 기록집>
<https://theater.arko.or.kr/archive/archiving/climateproject>

강한님. “이주노동자 바오씨의 <영원한 한때>.” 매일노동뉴스, 2024.7.22.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697>

김수진. “[르포]설 연휴에도 불 켜진 비닐하우스…고된 '마야'의 타국 명절.” 노컷뉴스, 2026.2.15.
<https://www.nocutnews.co.kr/news/6472438>

더 케어 컬렉티브. <돌봄 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정소영(역). 니케북스, 2021.

애나 로웬하웁트 칭, 제니퍼 데거, 올더 켈러먼 색세나,페이페이 저우. <패치 인류세: 인간과 생태계를 잇는, 인류학의 새로운 자연사>. 김희정(역). 해나무, 2026.

애나 로웬하웁트 칭. <세계 끝의 버섯: 자본주의의 폐허에서 삶의 가능성에 대하여>. 노고운(역). 현실문화연구, 2023.

Ann Laura Stoler. Imperial Debris: On Ruins and Ruination. Duke University Press, 2013.

Anna Tsing. Friction: An Ethnography of Global Conne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textile scénographe

숨은 존재들의 소리

이번 소리 작업은 어떤 상처 투성이의 커다란 나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상처란 다름 아닌 나무 껍질의 심한 균열이었다. 그 갈라진 껍질들은 마치 죽은 것 같고 언제라도 떨어져 나갈 듯 보이지만, 아주 오랜 시간 나무의 성장이 응축된 결과물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그들의 모양과 질감으로부터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를 느끼게 된다. 실제로 이 폐허 같은 껍질은 세균, 균류와 같은 미생물들의 서식지가 되어, 인간이 보지 못하는 복잡한 생태계를 이룬다.

미생물의 움직임은 눈으로 볼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존재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와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것이 이롭든 해롭든 인간은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와는 다른 시공간의 척도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때때로 그들의 시공간을 확대하거나 압축하여 우리가 인식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내게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 대신, 나는 인간의 태도가 이 숨은 존재들의 시공간에 얽전히 놓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움직임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 말이다.

공연 중 무대에서 들리는 수많은 작고 짧은 소리들은 관객을 나무 껍질의 시공간으로 초대한다. 수많은 소리들은 미시적 시간에서는 변화무쌍하게 진동하며 서로 간섭하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인간의 청각 기능 안에서는 그 많은 진동들이 응축되어 알 수 없는 어떤 질감으로 인식될 뿐이다.

이 소리들은 모두 무대 위 컴퓨터와 연주자에 의해 실시간으로 만들어진다. 이 작품에서 컴퓨터는 불확정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연주자는 리허설에서 익힌 감각과 약속대로 소리를 조정하려 하지만, 컴퓨터는 종종 연주자의 예상을 빗나가는 데이터를 임의로 발생시킨다. 이러한 인간과 컴퓨터, 혹은 확정성과 불확정성의 관계는 우리가 인식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어떤 숨은 존재들의 움직임을 살짝 훑쳐보려는 나의 의도를 담고 있다.

장재호

장재호는 작곡가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테크놀로지과 교수이다.
주로 과학과 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든 오디오-비주얼 작품으로
공연 및 전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물과 미생물의 진동에 관심을 두고 작업 중이다.



textile scénographe

이번 작업에서는 무용수가 어떤 의상을 입느냐보다 그 몸이 어떤 환경 안에서 움직이느냐에 관심을 두었다. 직물을 몸에 입히는 데서 나아가 공간으로 확장하고, 몸이 직물에 감기거나 그 안에 숨으며 움직임에 따라 관계를 맺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폐허와 서식지에서 떠올린 이미지와 서사를 직물에 담고, 무용수의 움직임을 통해 그것이 끊임없이 변형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텍스타일 시노그래피의 중요한 방향이었다.

‘서식지’라는 말을 접했을때, 예전에 살던 집 옆의 빈 한옥이 기억났다. 사람들이 이주한 뒤 오랫동안 비어 있던 그곳에는 고목이 서 있었고, 기둥을 따라 덩굴이 올라가며 틈마다 여러 식물이 제각기 자라고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이 떠난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 안에는 밀도 높은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누군가 관리하거나 계획하지 않아도 서로 얹히고 기대며 하나의 환경을 이루고 있었다.

그곳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바라보는 감각의 변화였다. 멀리서 하나의 풍경으로 보던 공간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덩굴이 어디에 감겨 있는지, 작은 식물이 어떤 틈에서 자라는지,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기대고 얹혀 있는지를 살피게 되었다. 이번 작업의 텍스타일 역시 이러한 감각에서 출발한다. 몸과 직물, 식물을 닮은 요소들이 서로 감기고 기대고 숨어들며 만들어내는 작은 관계들에 주목했다.

이렇게 무용수들의 몸들과 함께하는 식물들은 패치워크를 통해 엮임이라는 방식으로 이어져 나갔다. 서로 다른 조각을 균질한 하나의 면으로 정리하기보다 각 조각의 차이와 간격을 남겨둔 채 연결했다. 나에게 패치워크는 작은 존재들이 각자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서로 기대고 연결되어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방식에 가깝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용수들의 ‘안으로 말림’이라는 움직임을 중요하게 다가왔다. 이를 신체의 형태뿐 아니라 몸과 환경이 관계 맺는 생태적·구조적 방식으로 바라보았다. 안으로 말린 버섯의 형태에서 떠올린 생존과 보호의 이미지, 외부 환경으로부터 무언가를 감싸고 보호하는 방주의 구조, 밀싹이 자라며 안과 밖의 경계가 흐려지는 모습 등을 참고했다.

이 이미지들은 의상의 구조로 이어졌으며, 몸이 안으로 말리거나 숨어들 수 있고, 다시 펼쳐지면서 주변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조를 생각했다. 의상은 무용수의 움직임에 따라 변형되며, 때로는 몸을 드러내고 때로는 감추면서 또다른 공간이 되어주고 싶었다.

이번 작업에서 의상은 몸과 몸, 몸과 직물, 몸과 주변 환경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매개다. 몸의 움직임과 태도를 자연스럽게 받아주며,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 자체가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몸과 직물이 서로 감기고 풀리고, 숨고 드러나며, 각자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에게 기대는 과정에서 하나의 서식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이번 작업의 ‘서식지’는 완성된 하나의 풍경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들이 관계를 맺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이다.

김은경

몸과 움직임을 중심으로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

예술감독 및 안무 김보라

리서치 및 퍼포먼스 박상미, 최소영, 윤태준, 이규현,
손승리, 최민선, 김윤지, 고유진

사운드 컴포지션 및 디자인 장재호

텍스타일 시노그래피 김은경

조명 디자인 김병구

무대감독 김인성

음향감독 이동준

사진 윤관희

영상 김창구

그래픽 디자인 홍의택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및 아카이브 박정희, 임지우

프로젝트 매니저 이현미

프로듀서 이미진

공동기획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

주최, 주관 아트프로젝트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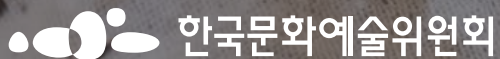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Special Thanks to

장혜진, 정유진, 김채희, 백소리, 정희은, 도윤승, 장영정, 이다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이범헌

사무처장 박범수

예술극장장 직무대리 홍승욱

[극장운영팀]

팀장 홍승욱

제작·기획 이유진, 황금실, 김자은, 두승희, 김민주, 장현진, 이지수

대관 최정호, 김예진

홍보 이재일

고객지원센터 편영란

하우스 변고은, 이경민, 황수희, 박유진, 김수현

티켓 신지혜, 김지수, 손주형, 유기은

시설 이기복, 박성국, 박동진, 윤지환, 유호성, 김부형, 진호택

꿈발극장 이재이

[무대예술팀]

팀장 진용남

무대 유창대 이동선 박민호 김인성 서지훈 원소미

이미현 진형주 박영규 최명인 성지연

조명 이주환 탁형선 김병구 박선임 이해영 김도형 윤지수 김우연

음향 김경남 도명호 허선영 김종현 남영모 유준상 정하윤 이현주

무대기술 119 지원센터 김희선 김하진 이은주 김수진

꿈발극장 신동환 최우영